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6월 25일(금)
...(음력 5월 16일)...
Пятница
25 июня 2021г.
№ 25 (1194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27일 러시아에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여러분!

6월 27일 러시아에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 기념일을 맞아 사할린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사할린 지역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에 남아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젊은이들은 경제와 비즈니스, 교육과 과학,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잘 지키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런 기획 중 하나는 극동지역 최초의 아트 레지던스 "마야크(등대)" 설립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이미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이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젊은이들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특히 활동적이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로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배달하고 심리적, 법적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내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서비스업 관련 포럼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업무 개선을 목표로 최초로 서비스업 관련 포럼을 열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사할린 주민과 고용주들은 '요리', '제과', '베이킹', '요식업', '호텔행정' 등의 업무에 대해 국제적이며 공인된 WorldSkills Russia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럼 참가자들을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농상업무 차관 나탈리야 로자노와 등이 환영하며 맞이했다.

요리사이자 국제 전문가 예브게니 이리쉬킨, 월드스킬스 <제과> 부문 러시아 대표팀 코치 알렉세이 그레벤시코브 셰프, "요식업" 분야 국제 기술 전문가 나탈리야 팔리나 등 러시아 전역의 전문가들이 이 포럼에 참여했다.

아나스타시야 코췌렌코 인적자원개발청 청장은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할린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기술 전문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분야 전문 센터를 만들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곳은 전문가들과 배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모임 장소이다. 행사장은 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그리고 이 축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기 코스와 주목해야 할 것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고 아나스타시야 코췌렌코가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포럼에서 이론과 실무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사할린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의 문제 해결 방안을 개발하고자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포럼 마지막 날에 참가자 모두가 수료증을 받았다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단신

사할린, 프랑스와 협력

지난 6월 23일 사할린주정부 청사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피에르 레비 주러시아 프랑스 대사, 러시아-프랑스 상공회의소 대표, 13개 프랑스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러시아와 프랑스의 상호 교류문제를 논의했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파트너십은 일관되고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인도주의 분야의 경제, 문화, 과학 및 상호작용 문제에 적용된다. 러시아는 지난해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일환으로 사할린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사할린은 5년 안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프랑스 회사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강조했다.

피에르 레비 대사는 리마렌코 주지사의 말에 동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과 자연 보호 또한 프랑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사할린 지역 지도부와 프랑스 기업 대표들은 협력을 위한 많은 제안을 했다. 그 중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건축자재의 생산, 건축설계 및 의약품 개발등이 있었다.

사할린주,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6월 23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다음과 같다.

845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383명이 입원치료 중. 사망자 62명. 병원에 입원 가능한 빈자리 82개.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59명이며, 백신 접종자는 3,323명, 총 접종자는 95,005명이다. 잔여 백신량 2,108도즈.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겪은 사람들 중 약 30,000명이 항체가 형성되었고, 102,071명의 주민이 백신을 더 접종 받아야 사할린 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6월 23 보건부 인스타그램에서는 주요 코비드 병원인 돌린스크 중앙구역병원에서 현재 중증 환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연령대도 변했다. 이전에는 주로 인공 호흡기를 기저 질환이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30대와 40대의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청년의날 주류 판매 금지

6월 27일 청년의 날에는 술 판매가 금지된다. 이는 청년의 날 기념 대중 문화행사가 열리는 사할린 주내 도시 또는 마을에 국한될 것이다.

주 농상업무는 사할린주 법에 따라 청년의 날 당일인 6월 27일 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다른 날에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상기시킨다.

해당 금지사항은 급식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주문 마감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마감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감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49루블리 3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6월 27일은 청년의 날

청년들을 만나다

제 나이, 제 젊음이 마음에 듭니다

6월 27일은 러시아에서 청년의 날이다. 러시아에서는 법적으로 14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이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날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10대, 20대, 30대 청년을 소개하고자 한다.

황 루슬란, 15세

- 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사할린 한인 이시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입니다. 저에게는 12살 아래 남동생도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9학년을 잘 마쳤고 10학년이 됐습니다.



공부는 잘 하는 편이고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로고스>지적클럽의 학교대표팀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식의 지적 퀴즈를 두고 팀웍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팀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경연대회 중급그룹에서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하바롭스크에 개최될 극동지역 지적게임 챔피언대회에 사할린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일반 주제, 예술 주제, 영화 관련 주제 등으로 지적 게임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민속스포츠인 씨름입니다. 제가 어릴적 부터 한 6년간 가라테를 했는데 2년전부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사할린주씨름협회 총 알렉세이 회장의 수업에 들어갔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5.6학년때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다녔는데 그때 처음 씨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씨름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 이 민속스포츠 씨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동안 훈련도 많이 했고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수상도 했습니다. 경기와 훈련으로 사할린의 다른 지방도 가 보았습니다. 마카로브, 흠스크, 돌린스크 등, 가는 곳마다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 지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자기 개인 생활, 여가, 취미 등도 지키고 싶습니다. 주위를 보면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4살이 되고나서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일하게 되었는데 일이 마음에 들어요. 주로 8-9세의 아이들을 위해 여러 퀘스트, 퀴즈를 준비하고 애니메이터로 활약하

니다. 이 일은 스스로 약속과 시간을 지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하면 우선적으로 가족이라고 봅니다. 저에게 부모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것은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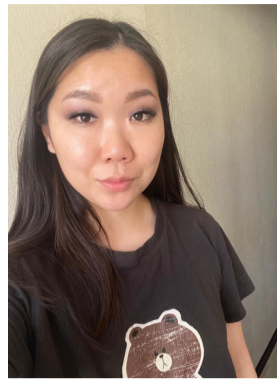
저는 유머감각이 있는 사람, 사람과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 진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지금의 제 나이가 마음에 듭니다. 세상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 교체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백 알레리아, 25세

- 저는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태어났는데 유치원때 부모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 이사왔어요. 제게는 오빠가 있고 몇분 차이의 언니가 있어요. 맞아요. 쌍둥이입니다. 저는 엄마처럼 의대에 가고 싶었는데 사할린에 남아야 하는 여러 사정들로 사할린국립대 언어장애학을 전공했어요. 졸업이후 장애어린이 센터에 취직했고 거기에서 일하다가 1년 6개월 전부터 <아랄리아>재활센터에서 언어장애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 일에 마음에 들고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저는 언어장애전문가로 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무렵에 부모님 도움으로 차린 여성복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대학생 시절에 사촌언니가 운영하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런 매장을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 2개 매장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 비즈니스를 더 확장할 자신은 없어요. 더 크게 키우고 싶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지 모르겠네요.

(3면에 계속)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18일부 새고려신문 <어릴적 꿈을 이룬 이 세르게이 외과 의사> 기사에 이세원 씨의 러시아어 이름을 정정합니다. 세르게이 올레고위츠를 올레그 세르게예비치로 고칩니다

새고려신문사 편집부

이 모 저 모

사할린, "쿠릴의 진주 목걸이" 발간

"쿠릴의 진주 목걸이"책의 기념출판회가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에서 열렸다. 도서관의 공동 저자인 갈리나 아르히포와와 이리나 카웨리나가 직접 작품을 소개했고,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과 독자들에게 저서 몇 부를 선사했다.

이 책은 2부로 (이투루프 섬과 쉬코탄 섬)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지리학회 창립 175주년 기념으로 관광객, 여행 애호가 및 관광 가이드 등을 위한 책이다. 사할린 국립대학의 공과전문학교(폴리테크니쿰) 교수 이리나 카웨리나는 이 책을 쓰기가 쉬웠고 즐거웠다고 한다.

사할린과 극동에 관한 많은 책들의 저지이며, 투어 안내자이며 교육자, 지역사 연구가이고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의 오랜 친구이자, 자원봉사자이며 "사할린 인민 가이드" 프로젝트의 멤버로서 갈리나 아르히포와는 이 저서에 대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고, 이 도서를 소개하면서 행사참가자들에게 쿠릴 열도의 주민, 명소, 동식물에 대한 인상을 전해주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며, 오랫동안 여행객과 여행사를 매혹 해왔다. 사할린주 문화관광센터의 행사조직부 부장이며 여행사 대표인 안드레이 카프칸은 가이드들의 적극적인 준비교육을 위한 방법론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준 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 책에는 인기 관광 코스들과 관광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들도 상세히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도서관측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зентовали книгу "Жемчужины Курильского ожерелья"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Жемчужины Курильского ожерелья" состоя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Авторы издания Галина Архипова и Ирина Каверина лично представили совместный труд и подарили несколько экземпляров как СахОУНБ, так и читателям.

Книга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частей (остров Итуруп и остров Шикотан). Она посвящена 175-летию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адресована туристам, любителям путешествий, экскурсоводам. Как сказала Ирина Каверина — педагог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ахГУ, — писать книгу было легко и приятно.

Галина Архипова, автор множества книг о Сахалине,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кскурсовод, педагог, краевед,

давний друг и волонтер СахОУНБ, член проекта "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ид" представила видеопрезентацию о книге, провела для гостей экскурс по ее страницам, рассказала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о людя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флоре и фауне островов Куриль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амые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е места России, и они давно привлекают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дной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турфирм,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й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ндрей Кафкан поблагодарил авторов за создание книги,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рекрасным методическим пособием для ак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гидов. Кроме того, он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что в книге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ы популярные маршруты, и опас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турист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가족축제에 초대

"엄마, 아빠와 나는 다정한 가족이에요!"라는 제목으로 가족 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릴 것이다.

올해 이 축제는 7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행사는 정오 12시에 시작된다.

축제 공연에는 한민족 타악기 팀 "하늘", 댄스 학교 엔젤 댄스 스튜디오, "사할린 이스코르키" 무용단, 스포츠학교 "곤쉬키"등이 참여한다.

인터랙티브 장은 12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된다. 주 일반과학 도서관에서는 퀘스트와 퀴즈를 진행할 것이다. 향토 박물관은 창의 플랫폼, 보드게임 등을 준비한다. 주 미술관에서는 그림 그리기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올림픽 예비 선수 준비 스포츠 학교 "곤쉬키"에서는 툴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 마스터클래스를 연다.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그의 페이스페인팅, 헤나, 솜사탕, 포토존, 수공예품 박람회 등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축제 프로그램은 메멜리야노브 거리 11 번지 (가족 클럽 "아엘리타")내에서 열릴 것이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센터가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сем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Сем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Мама, папа, я — дружная семья!"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3 июля. Начало мероприятия в 12:00.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концерте выступят ансамбль ко-

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ьель", школа танцев Angel Dance Studio,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Сахалинские искорки",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Гонщик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12:00 до 14:00. Област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оведет квест и викторину.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организует творческие площадки, настольные и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рисованию проведет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Мастер-класс на роликах и скейтах проведет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Гонщики". И это еще не все. Гости ждут аквагрим, мехенди, сладкая вата, фотозоны и ярмарка ручных работ.

Праздник пройдет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 улице Емельянова, 11 (семейный клуб "Аэлита",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사할린 주민 3명, 러시아 사진작가 연합회의 지원금 받아

국내에서 다큐멘터리와 예술 사진 지원을 하는 러시아 사진작가 연합회가 매년 열리는 지원금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금은 단체 회원 작가의 다양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제공된다. 올해에는 사할린의 세 명의 사진작가 알렉산드르 가이보론, 드미트리 코발료브와 키릴 야스코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세명 모두 "리스트"사진작업실 단체의 대표로 이 단체는 자원 봉사자 사진을 가르치고, 사할린 지역 사진작가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다.

"우리 연합회는 설립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단체로 등록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와 발전에 있어서는 매우 진지하다. 매년 여러 사진 전시회를 열고 초보 사진작가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사할린에 처음으로 러시아 사진작가 연합회의 사할린 지부가 설립되었다. 이는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사진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프로젝트와 제안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리스트"작업실 지도자 알렉산드르 가이보론이 말했다.

올해 "리스트"는 전염병 대응행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인형 극장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단체 대표들이 토마리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들을 방문하여 현지 어린이들에게 사진촬영 기초를 교육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여러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중 하나는 연합회 지원금으로 조성되는 특별한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사진 자화상 사진전이다.

(8면에 계속)

6월 27일은 청년의 날

청년들을 만나다 제 나이, 제 젊음이 마음에 듭니다

(2면의 계속)

직장생활 외에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실 자유 시간은 별로 없지요. 별로 없는 여가시간은 남편과 보내기를 좋아하고 독서도 즐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삶에서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전공을 선택했고 사할린에 남아 사랑하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가장 귀중한 것은 가족이죠. 저의 가족, 친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나이, 제 젊음이 마음에 듭니다.
한철원(러시아 이름 세르게이), 31세

저는 홉스크에서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이후 하바롭스크 극동철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교량건설입니다.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이미 대학생 시절부터 실습으로 공사장에 많이 다니며 익히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후 사할린에 돌아와 교량건설을 전

문으로 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일은 마음에 드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나가면 가족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위해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를 제외하고는 사할린의 거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녔거든요. 캄차트카(현재 캄차트카에 가있음. - 기자 주)에도 여러번 가구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아이들이 자기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죠. 저희 맏딸은 7살, 둘째 딸은 3살, 막내는 아들인데 한살 좀 넘었습니다. 자유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려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는지요.

취미로는 산악 스키, 겨울 낚시를 즐겨요. 겨울에는 공사장에서 여름처럼 바쁘지 않거든요. 여름철에는 실새 없이 바깥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도 보지 못해요.

사람에게는 솔직함과 진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이 짧아서 표현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스스로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제 나이대의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가 마음에 듭니다.

(배순신 기자)

순국선열 애도의 날

러시아에서 6월 22일은 영원히 슬픔에 찬 추모의 날로 남을 것이다.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된 대조국전쟁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잔혹한 이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내며 우리 선조들은 조국을 지켜냈다.

소련의 사할린에서는 다른 지역 국민들처럼 전쟁의 시작에 대한 소식을 겹겹히 받아들였다. 외딴 섬 사할린에 1941년 6월 22일 저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부 사할린에서부터 붉은 군대로의 동원이 시작되었다. 만 명이 넘는 사할린 주민들이 전선으로 나섰다.

전쟁 첫날부터 사할린 석유공들은 석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2백만 톤의 석유가 생산되었다.

사할린의 광부들은 대조국전쟁 동안 인내하며 일했다. 전쟁의 첫 해인 1941년에 그들은 641,000톤의 석탄을 생산했다.

사할린 지역 어부들도 쉴 새 없이 일했다. 20개의 생선 가공 공장과 소금 탱크를 갖춘 5개 가공기가 24시간 내내 (연중 무휴 작업) 가동되었

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사할린 어부들은 생선 1억 kg 이상을 어획했다.

수천 명의 능력있고 건강한 남성들이 전선에 나섰고, 여성, 노인, 그리고 아이들은 전선에 나가는 대신 별목 작업에 투입되었다. 전쟁 기간 사할린 별목장에서 전 러시아에 100만 m3 이상의 목재를 제공했다.

전쟁 기간 동안 가구, 나무통, 목재 가공을 위한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었다. 군수품 조달을 위해 공장들에서는 가족 제품, 안장(마구 제품), 모피 옷, 신발 등의 생산을 늘렸다.

농업도 역시 주로 10대와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농업 종사자들은 감자를 비롯한 채소들의 수확 면적을 늘릴 수 있었다. 전쟁 기간 동안 소련의 사할린 사람들은 다른 지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고난을 견디며, 잘 자지도 쉬지도 못하고 전선의 필요에 따라 일하며, 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 형제, 아들들을 돕기 위해 일했다.

대조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모든 후세들에게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과 평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사할린주통계국 제공)

사할린-모스크바 노선

주지사와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는 사할린과 모스크바 간 항공의 좌석 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항공사측은 기존보다 더 많은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큰 항공기 보잉 777300ER(457 석)을 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6월과 7월에는 1,500명이 추가로 모스크바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와 "아에로플로트"항공사 대표이사이며 이사회 의장 미하일 폴루보야 리노브가 실무 회의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항공편의 편성을 늘리기로 합의했었다. 지금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귀향에도 도움이 되는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후의 항공사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왈레리 리마렌코가 강조했다.

5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스크바-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모스크바 노선 항공편이 하루 2회 운행된다. 그리고 6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세 번째 항공편이 추가로 편성된다. 따라서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일주일에 총 16편이 된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해당 노선의 항공편은 일주일에 12편 편성됐었다고 사할린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국내 출판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위한 온라인 상담회 개최

문체부·출판진흥원,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계기
6월 21~23일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과 함께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 319~326호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2021년 '찾아가는 도서전' 온라인 화상 상담 모습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출판 화상 상담회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서울국제도서전과 모스크바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교환 참가해 출판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출판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양국 출판사 간 최초로 기업 간 거래(B2B)를 열어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시아 내 케이팝, 한국 영화와 드라마, 한식 등 한류 열풍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와 함께 한국도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드라마소설과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다룬 도서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설계자들(김연수)>,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등 소설과 <알사탕(백희나)> 등 그림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온라인 상담회에는 러시아 대표 출판사인 엑스모-아스트(Eksmo-AST)와 한국도서를 다수 출간한 기페리온(Hyperion) 등 약 15개사가 참가한다. 엑스모-아스트는 2012년 엑스모(Eksmo)와 아스트(AST)가 합병한 거대 출판사로 러시아 도서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채식주의자(한강)>, <7년의 밤(정유정)> 등 다수의 한국소설을 출간했다. 기페리온은 동양 문화권 도서를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로 <구운몽(김만중)>, <두근두근 내 인생(김애란)>, <세상의 끝 여자친구(김연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등 다수의 한국소설을 출간했다.

국내에서는 ㈜다락원, ㈜다산북스, 킨더랜드 등 22개사가 참가한다. 또한 출판저작권 중개회사인 임프리마코리아가 참가해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위탁도서 97종의 수출 상담을 대행한다.

국내 참가사들은 자사 도서를 홍보하기 위해 수출 상담에 앞서 출판수출 온라인 플랫폼인 '케이북(K-Book, k-book.or.kr)'에 도서 소개자료를 올리고 러시아 출판사는 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상담에 참가하게 된다. 주최 측은 러시아 출판시장 현황을 알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러시아 수출상담회에 이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내 44개 출판사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11개국 27개 출판사와의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마련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이후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이어온 만큼 출판 분야에서도 교류를 활성화해 더욱 우호적인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온라인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재외한국문화원과 협업체 현지 교류 행사 등을 열어 침체된 국내 출판사의 수출 활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사할린 동포 디지털 역량 높인다 28~29일 음성지역 동포 대상 교육 지원

충북도가 충북스마트쉽센터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음성군의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키오스크 작동법과 스마트폰 배우기, 카카오톡 설치하고 문자·사진 전송하기, 개인정보 보안법, 보이스피싱 차단 및 금융사기 소양 교육 등이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1대 1 가정방문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제34회 정보문화의 달'에 맞이해 시행되며,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해 모든 도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도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충북스마트쉽센터는 사할린 동포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차별 없이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월 '사할린 동포 디지털 시민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이나 상담을 희망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충북스마트쉽센터(☎043-211-8275)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2년 충북스마트쉽센터를 개소해 과의존 예방 교육, 가정방문 상담, 스마트폰 대안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디지털배움터의 에듀버스를 통해 키오스크 작동법 및 보이스피싱 차단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사할린 동포 56명에게 1대 1로 실시했다.

(충청매일)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вязи Сахалин

В последних числах мая МГУ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совместно с Литературным институтом им. А.М. Горького провели первую двухчасовую онлайн-встречу «Россия многолика». Знакомство с регионами началось с Сахалина, рассмотренного в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 векторах.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дакци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Уримал Бансон» Ким Чун Дя, сотрудни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Елена Нитчук и Ольга Соловьева, директор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Марина Гулакова 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воодушевленно рассказывали о том, что отличает островную цивилизацию от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страны.

Ректор Литератур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А.М. Горького Алексей Варламов (а в его недавней книге «Душа моя Павел» упоминается Итурул) говорил метафорами о связанности времен и пространств, в которых Чехов мог быть отправлен на Сахалин чуть ли не Львом Толстым (потомок которого –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ы Владимир Толстой тоже входит в число инициаторов развития проекта «Россия многолик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Институт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МГУ Валерий Частных сосредоточил вниман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м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а в области литера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взял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короткие интервью у японских ристов Нумано Мицүёси и Ивамото Кадзухис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ример театрализации народной сказки иностранными студентами программы «Здравствуй, Сахалин!».

Проректор МГУ Татьяна Кортава в завершении встречи отметила, что местом нового виртуальн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Многоликой России» может стать не только Владивосток или Якутск (а с ними сейчас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екта), но и и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место,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которого может ярко представить культуру своего родного края.

Запись встречи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а ютуб-канале Институт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МГУ (ИРЯиК МГУ) по ссылке: <https://youtu.be/Uqwlk6iWAPc>

Е.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Продолжаем публикацию работ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ов "Пишем вместе".
Проба пера

Моя мама не отличалась от других женщин особой красотой, но у неё во всем был «шик». Её звали Кё Фумико. Она закончила японскую школу, участвовала во многих самодеятельных кружках, моя мама была женщина-праздник. Нам, троим её детям, она устраивала дни рождения во дворе нашего дома. И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пели под баян и танцевали.

В то время было очень модно петь индийские песни с участием Раджс Капура. И мою маму просили: «Спой, Фумико, просим!» Мама одевала мужской костюм, шляпу папину, брала на плечо метлу, а на метлу вешала узелок, как в фильме «Бродяга», пела - и все хлопали. Затем и папа затягивал песню, и все гости подпевали.

Тогда люд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жили дружно, замков на дверях не было.

Моя мама любила порядок во всем. Дом был большой, но до чего уютный. На окнах висели красные бархатные шторы, на кухне стоял сервант, он раньше назывался «буфет», на этажерке стоял горшок с фикусом, рядом проигрыватель «Рекорд», а с потолка свисал «абажур» красного цвета, на полу лежала ковровая дорожка.

Каждый день ломился от еды стол. Огород был большой и всегда там был порядок, хотя работала там только мама. Нас мама любила и оберегала, поэтому говорила: «Успеют...»

В школе мы были «белые лебедушки» - белые банты на головах, белые воротнички с манжетами, белые носки, нас поэтому назначали санитарями.

Мама все время работала не покладая рук.

Но вот наступал воскресный день. Рано утром мама уходила куда-то, и появлялась на пороге дома - похожая на фею. Ее волосы развевались, платье тоже. Лучи солнца делали её воздушной, будто она вот- вот и улетит. И звучал мамин голос: «Быстро собираемся, хорошие!» Пока мы спали, она сварила завтрак, накормила скотину, полила водой грядки, съездила в город, парикмахерскую, забрала у портной наши платья. И вот мы едем в парк: папа в белом костюме, мама в шифоновом платье, в шляпе с вуалью, в бархатных туфлях и мы дети-«лебедушки».

Когда мы выходили из дома, соседи выглядели со своих окон и смотрели на нас. В то время мы были «не от мира сего».

Моя мама

А потом снова понедельник. Мама одевает свои шаровары и идет в огород, потом на рынок - сбуть товар.

Вечереет. Слышим скрип калитки, бежим:

- Мама приехала!

- Как съездила?, - спрашивали мы хором.

- Хорошо, - отвечала мама

А однажды сказала: «Вот только чемодан с помидорами украли!»

- Как украли?!

Мама стала рассказывать: «Чтоб срезать путь на рынок, я решила пролезть через забор с одним чемоданом, а когда вернулась за вторым, его там не было. Но зато я столько вам гостинцев привезла!»

Даже женитьба мамы с папой была неординарной. Они об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Мама училась в Японии, папа там выучился на парикмахера, а поженились они на Сахалине, родили 2-х девочек и мальчика.

Мама умерла в 36 лет. Я помню, как моя мама, когда лежала в больничной палате, попросила: «Тамара, принеси рисовую похлёбку».

Я сварила маме и поехала к ней. Представила, что я увижу маму и она меня похвалит: «А какая ты молодец, моя дочь!» А в место этого она, нет, не кричала, даже не ругала... Моя мама посмотрела на меня так: «Зачем ты принесла рисовую кашу, я просила джю», и когда я уходила, во мне ее слова звучали эхом.

Рак не пощадил мою маму. Мне было 12 лет, сестренке 10 лет и брату 5 лет. Я помню, как мы ещё долго её ждали, когда она приедет с рынка и привезет нам гостинцев. Иногда мы засыпали у окна...

Когда подружки звали своих мам, мне тоже хотелось закричать: «Мама, моя мама... Почему тебя так долго нет????» И слышан был только шум дождя, и выл холодный ветер, хотя во дворе стоял июнь.

После ее смерти была обида: «Она нас оставила!». Я говорила себе: «За что? Почему? Даже о братике не подумала!».

Из «белых лебедушек» мы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серых утят» Мы быстро повзрослели.

Я закончила среднюю школу и с подружкой собралась поступать в институт. Папа говорил мне: «Тебе куда не надо поступать. Когда мы уедем в Корею, то с твоей красотой и высоким ростом, все богатые женихи будут у твоих ног, и старость моя

Квон Тамара, 1951 г.р.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а, и жизнь всей нашей семьи тоже» Красота – это широкое-преширокое лицо, черные брови полумесяцем, высокий рост – это 152 сантиметра. Но папа считал меня всегда очень красивой. У папы всегда был «чемоданный» настрой, он верил, что когда-нибудь мы будем жи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Он не дождался в «небесную страну» в 1991-м.

Жизнь приводит нас к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поворотам судьбы. Моя мама была парикмахером. Я выучилась на бухгалтера, и мне предложили работу кассира-контролёра в парикмахерской, а через год я сама стала парикмахером. Сестренка не смогла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после чего... и она стала парикмахером. Позже преподавала в училище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дело.

Во время перестройки мы все трое стал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Дочь моя закончила СахГУ, и тайно от меня посещала семинары, выучилась в Москве на стилиста-парикмахера, открыла свою студию. Дочь брата тоже имеет свой салон.

Прошли годы, вспоминается только хорошее, мы прожили хорошую жизнь, были по-своему счастливы.

С подругами дружим с первого класса, и сейчас с моей подружкой сижу за одной партией, мы пишем истории. И когда нам дали задание написать о маме, мне сначала писалось легко, но потом воспоминания нахлынули как волна за волной и брызги от этих волн, такие теплые и струящиеся, быстро высохли - я вытирала слезы. И вспоминала... Как все изменилось со смертью мамы. Ясная солнечная погода исчезла, небо покрылось темным покрывалом туч. Они стали быстро надвигаться, казалось, хотели раздавить - и полил проливной дождь. Я не могла остановиться, слезы душили меня, я как будто смотрела на нас, троих детей и спрашивала: «В чем мы были виноваты? А мама? Такая молодая!»

Когда пишешь историю, мысли без остановки льются быстрее, чем излагаешь на бумаге, и те ситуации, которые были спрятаны глубоко в подсознании и когда-то засели в душевной памяти, выплескиваются вдруг. Сейчас словно огромную занозу извлекли из моего сердца.

В начале оно кровоточило, но постепенно-постепенно боль утихала – и утихла. Теперь я плыву и вижу впереди тихую гавань.

Бронзовый призер России

10-14 июня в г. Белгород прошло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12-14 лет. Свыше 8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6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боролись за звания лучшего в стране и путевку на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среди юношей. От Сахалина выступало 7 спортсменов. Двое из корсаков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ба выступали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33 кг – один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й о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ровень техниче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растет.

На кону путевка на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С первых секунд чувствовалас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и желание спортсменов дойти до финала и побороться за место в сборной команде России.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выиграть 6 поединков, задача сверхсложная.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33 кг выступало 63 спортсмена. Первым начал поединок Беленков Андрей СОШ №6 и довольно уверен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прекрасную технику, выиграл бой у представителя Тюмени со счетом 22:4. Второй бой он выиграл у представителя Татарстана со счетом 23:12. Для дебютанта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это очень неплохой результат. Но, к сожалению, в третьем бою проигрывает со счетом 18:10, причиной



послужила травма, полученная во время поединка, но мужественно доводит бой до конца. Полноконтактный вид спорта для настоящих мужчин. В спорте кроме хорошей техники и силы воли иногда нужна так спортивная удача.

Наш лидер сахалинского тхэквондо Максим Ли СОШ №6 по жеребьевке сразу проходит во второй круг и встречает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Владикавказа из команды «Алания», лидера российского тхэквондо. Но Макси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великолепную технику и большой опыт, выигрывает с огромным счетом досрочно 34:9. Третий бой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из г. Черкесска,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Юж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Они уже встречались 1,5 месяца назад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г. Одинцово, где Максим проиграл со счетом 36:24. Понят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верен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ска. Первый раунд ведет Максим, минималь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второй то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а, а в третьем проигрывает, но буквально за 30 секунд до конца поединка догоняет и выходит вперед, счет поединка 16:13.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должен был быть финальным поединком, вед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Черкесска были уверены, что они станут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этом весе. Надо было видеть удивление тренера и расстройство спортсмена, которых остановил сахалинский спортсмен на пути к победе. Но, к сожалению, спортивная удача отвернулась от нашего спортсмена, он в этом бою получает травму. Следующий бой он проводит буквально на одной ноге и спортивной воле к победе и выигрывает у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со счетом 30:5 досрочно. И за выход в финал встречает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Дагестана, а это одна из самых серьезных школ России. С ними драться с полученной травмой нереально. В этом бою Максим Ли уступает, 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агестана в итоге становится победителем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Тренерский коллектив клуба «Единство» с Сергеем Ли проделал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и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ь Максима Ли и включение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среди кадетов неплохой результат.

Президент клуба «Единство» Ли Чун Си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н Ким: США надеются на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ашингтон надеется на то, что Пхеньян «скоро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ветит» на предложение Вашингтона о диалог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н Ким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21 июня в Сеуле встречи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Гю Доком. При этом Сон Ким сослался на недавнее заяв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о том, что Пхеньян должен быть готов как к диалогу, так и к конфронтации, подчеркну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таби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 ситу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н Ким подтвердил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ашингтона делу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средством дипломатии и диалог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о Гю Док отметил, что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скорейшему возобновлению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Мы хотим восстановить структуру, в которой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отношения США и КНДР взаимовыгодно дополняют друг друга», - сказал Но Гю Док.

С 1 июля в РК смягчатся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активной вакцинацией против COVID-19 в Р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ут смягчены пра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Как сообщил 20 ию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Бу Гём, с 1 июл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частных собраний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до шести человек, а с 15 июля – до восьми человек. В ост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частных собраний с начала июля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Одновременно пятиуровневую схему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заменит четырёхуровневая. Самый низкий уровень будет сохраняться, когда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инфекции составит менее 250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и менее 500 по стране в целом.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будет введён, когда данные показатели превыся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500 и одну тысячу.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когда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превысит одну тысячу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и две тысячи по стра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и правилами, ночные клубы, бары и други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в котором,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сохранён второ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смогут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тренажёрные залы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до полуночи, то есть, на два часа дольше, чем сейчас.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будет введён первы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ачиная с осеннего семестра, в школах РК возобновятся очные занятия

Начиная с осеннего семестра,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с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к очным занятия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ой системой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которая вступит в силу с 1 июля. Как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К Ю Ын Х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ой четырёхуровневой схемой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чные занятия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все школьники.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уровня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в течение полного рабочего дня разрешено при условии заполняемости аудиторий не более двух третей списочного состава учащихся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 и трёх четвертей – с третьего по шестой класс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Детские сады, первый и второй классы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проводят очные занятия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с учёто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Однако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с начала января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не превышало одной тысячи в день, учащиеся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могут физическ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учителями и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В школах с большим числом учащихся может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 гибкий график начала и окончания занятий.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самоизоляции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туристов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пояснили, что объявленное ранее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обязательной двухнедель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лиц, прошедших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за границей,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тех, кто въезжает в страну в туристических целя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7 июн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Сон Ён Рэ.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в связи с опас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неправиль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объявленных мер. Ранее, 13 ию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вило, что от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будут освобождаться лица, прошедшие вакцинацию за рубежом, которые въезжают в страну с важными деловыми целями, для посещения ближай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ли участия в научных и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 этом признаются только вакцины, одобренные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Pfizer, Janssen, Moderna, AstraZeneca, Covishield, Sinopharm и Sinovac.

(RKI)

Ким Чен Ын дал ответ на новую линию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лжна быть готова как к диалогу, так и к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с Вашингтоном. Так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недавно официально принятую Вашингтоном политическу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восприняли это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й знак и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готовнос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Соединёнными Штатами.

Об ответе КНДР на утверждённый курс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из официальн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которые сообщили о содержании высказыва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Ким Чен Ына на проходящем 18 июня в Пхеньяне заседании третьего пленум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ПК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ля защиты достоинства и интересо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дёжной гарантии мирной обстанов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нужн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и к диалогу, и к конфронтации" - цитиру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При этом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 конфронтаци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тщательнее".

Как следует из публикации ЦТАК, Ким Чен Ы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л свой ответ на недавно озвученную Вашингтоном политическу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Товарищ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подроб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 политическую тенденцию вновь возникш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азъясни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и т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и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ддерживаться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ША в предстоящие дни", - отмечает ЦТАК.

Ким также призвал "отвечать на ежечасно изменяющееся положение и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к стабильному контролю над ситу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Южной Корее дан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Ким Чен Ына восприняли позитивно, посчитав это признаком готовности к диалогу с США и решением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не нагнетать напряжённость. С учётом постоянно звучащих в адрес Пхеньяна из Вашингтона призывов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НДР и США смогут найти способ, чтоб начать прямое личное общени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Информация об услугах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Covid-19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вязи с диагностик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интернете можно найти много информации о ПЦР-тестировании, известное как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лимеразной цепной реакции. Это метод молекулярной биологии, позволяющий добиться значитель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малых концентраций определенных фрагментов нуклеиновой кислоты вируса (инфекции) в биологическом материале (пробе) до уровня, на котором он может быть обнаружен.

Испытательный лабораторный центр ФБУЗ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еет данным метод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с 2003 года, метод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я возбудителей гриппа – РНК-содержащие вирусы А и В, гепатит С, в установлении вида возбудителя кишечной инфекции: рото-норо вирусов, энтеровирусов и других. ПЦР актуальна и летом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передаваемых иксодовыми клещами: боррелиоза (болезни Лайма), клещевых энцефалитов.

С 18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vid-19, в лабораториях особо-опасных инфекций и вирусологической ФБУЗ «Центра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начато его тестирование методом ПЦР. Всего лабораториями центра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о тестов на COVID-19: в 2020 г – 153430 и за полгода 2021года – 45000.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симптомов COVID-19, такие, как жар, кашель, усталость или затрудненное дыхание, а также при контакте с больным коронавирусом, надо обратить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где и производят забор биоматериала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В качестве образца биоматериала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берут мазки из стенок рото- и носоглотки.

Если у пациента симптомы Covid-19, то материал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отправляют в лабораторию ФБУЗ

Центра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подтверждают диагноз ПЦР методом. Испытательный лабораторный центр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е больных COVID-19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На результаты стандартной ПЦР диагностики нужно 48 часов и этот метод считается достоверным. Результаты анализа направляют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е «РАМЗЭС» в те ле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ткуда были доставлены образцы.

Материалы от контактных без симптомов COVID-19, а также выезжающих в санатории или на лечение, направляются лечеб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в диагностиче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 Анкудинов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лабораторный центр ФБУЗ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по адресу ул. Хабаровская, 45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ля выезжающих за преде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латную услугу по оформлению Сертификата (Протокола) обследования на COVID-19 с QR-кодом. Для правильного внесения записи в получаемом Сертификате надо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пию паспорта или иного документа на русском ил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при выезде за границу).

Забор материала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ится в процедурном кабинете ежедневно, кроме субботы и воскресенья с 8-00 до 11 часов. Далее в лабораториях особо-опасных инфекций и вирус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водят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COVID-19 методом ПЦР. Сама услуга обследования бесплатная. В тот же день производится оформление протокола исследования, а сдавший тест, в 17 час в кабинете забора материала получает Сертификат (Протокол) ПЦР -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COVID-19 на русском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И.о. заведующего испытательным лабораторным центром «Центра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ку Ден Сун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ветил на три главных вопроса о вакцинац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развернутый комментарий по актуальной теме.

В тексте говорится:

«Дороги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объявил о 60 % вакцин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тех учреждений, которы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 людьми. Это касается сферы торговли, транспор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яда других.

Это решение вызвало много справедливых вопросов, и я считаю, что мы должны их вместе обсудить и прийти к общему пониманию того, как нужно действовать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Итак, значит ли, что вакцинация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указанных сфер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форме?

Нет,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ам нужно стремиться к коллективной иммунизации,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интересы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И если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показаниям или по внутренним убеждениям он не хочет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то он может этого не делать.

Никто не допустит того, чтобы человек получал вакцину под угрозой увольнения. Поэтому мы запустили горячую линию, чтобы взя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д защиту. Если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возникает, прошу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1-300.

Но я еще раз хочу призвать всех, кому позволяет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К концу лета люди будут возвращаться из отпусков, дети пойдут в школу, и мы можем получить залповый всплеск заболевания.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это, у нас остается всего два месяц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е опросы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две трети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готовы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и мы должны помочь им это сделать самым удобным для них способом.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очень важно сделать вакцинацию максимально доступной. Люди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ее во всех ФАПх, поликлиниках,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И наши врачи прикладывают для этого все усилия.

Я убежден, что в каждом рабочем коллективе люди, благодаря своей мудрости и большому житейскому опыту, смогут найти оптимальные решен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коллективной иммунизации, не расколов при этом общество. В единстве и есть наша сила.

Насколько безопасна и эффективна вакцинация?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ойкий иммунитет после прививки формируется в 96% случа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кцинацию прошли 8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перенесли эту процедуру легко и получили стойкий иммунитет. Хотя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к сожалению, все же есть, но даже тогда оно переносится гораздо легче.

И наконец, главный вопрос: для кого нужна вакцинация?

Ответ очень простой: для нас самих и наших близких.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целый год находились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Для людей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которые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двержены опасности. Для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тложить очень нужные им плановые медицинские операции на неопределенный срок.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которым пришлось перейти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остановить работу.

Нам нужно вместе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верну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е раз преодолевали трудности. Мы - жители области – одна большая и дружная семья. Давайте и сейчас будем действовать сообща. Уважая друг друга и учитывая особенност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защитим себя и своих близких от болезни».

На Сахалине рядом с Солнцевским угольным разрезом создают технопарк «Углегорск»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поддержан сахали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здание свыше 7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ВГК), которая возводит технопарк на площадке 13 гектаров, планиру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ведение комплексного сервис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ремонта техники.

Уже сегодня в технопарк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лаборатория анализа масел, не имеющая аналогов на Сахалине. Благодаря ей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отслеживать состояние технических жидкостей, но и проводить мониторинг состояния автомобильных узлов и агрегатов,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риски аварийного выхода из строя дорогостоящей техники.

Также н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находится участок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рукавов высокого давления, который оперативно обеспечив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активы ВГК комплектующими для всего ряда горной техник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епрерывно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построен склад площадью 1600 м² для хранения товарно-матери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ехнопарка уже работают компании, оказывающие комплексное сервис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е и ремонт техники. К примеру, резидент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площадки стала компания Modern Machinery,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ремонтом карьерных са-

мосвалов Komatsu. Компания Liebherr организовала сервисный пост для бульдозеров и погрузчиков с перспективой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лноценного бокса для ремонта тяжелой техники.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Hitachi в России, MineTech Machinery, организовал сервисный пост для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монта техники и оборудовал складское помещение для запчастей. Также резидентами технопарка стали компании, оказывающие услуги по перевозке горной массы.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этапа н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ремонтно-механического цеха. Он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сварочный участок, участок по ремонту гидравл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ремонту узлов и агрегатов, а также механический участок с современным металлообрабатывающ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современ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мойки карьерной техники по технологии замкнутого цикла. Также на площадке технопарка расположится новое офисное здание Солнцевского угольного разреза с современной диспетчерской, откуда ведется опера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сем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Кроме того, неподалеку от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площадки возводитс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линия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крупногабаритных шин в резиновую крошку и в последующем в жидкое топливо.

Технопарк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энергоносителями и инженерными сетями. Его открытие благоприятно скажетс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в цело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ртовал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1»

За прем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оборются учите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рачи, спортсмены, волонтеры и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В проекте также участвуют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госучре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ждают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4 ноября.

– Опыт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казал, чт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ый и нужный для области проект.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восьмисот заявок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торые вносят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Вместе с вами мы выбрали и наградили лучших из лучших. Тем самым показали, чт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вет множество талантливых и инициативных людей,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 своем деле, – обратился к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давайте заявки и поддерживайте земляков в 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Давайте вместе сделаем так, чтобы о выдающихся жителях региона узнали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и, но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инимаются через региональ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туризма и экологии. Также их можно подать в департаментах внутренне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стровных агентствах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рыболовству.

В этом году лучших из лучших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в 31 номинации. Добавилось три новых.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звание «Лучшая компани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спехи в реализации свежесловленной рыбы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овых категорий также – «Туриз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Клима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стижения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 экологии.

Сокращ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подноминаций – их будет 15 вместо 48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определят 41 победителя и 82 лауреата. Список номинантов пройдет через три стадии голосовани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экспертное жюри и народное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октябре.

Премия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учреждена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волонте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В ряды добровольцев приглашают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лет.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 июля.

Регистрация волонтеров проходит на сайте Dobro.ru. Волонтерам предстоит работать по 9 функциона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встреча гостей, сопровождение групп, проведение экскурсий, помощь в аккредитации, размещении, сопровождении форумчан.

– Наши добровольцы прошли уже не одно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 доказали, что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Например, островные волонтеры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первых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заимопомощи «МыВмест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м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открыт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ахта памяти», – поделилась координатор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форума «ОстроVa» Кристина Давыдова.

Перед форумом ребята пройдут тренинги, где не только изучат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обязанности, но и «прокачают» личностные качеств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заявку подал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Ярослав Лебедев.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более 10 лет актив-

но участвует в жизни области.

– Мне нравится быть частью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же был волонтером на форуме «ОстроVa»,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ребятам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работать с нашими серебряными волонтерами, которые старше 55 лет. Они поделились ценнейшим опытом, который накопили за всю жизнь, – рассказал Ярослав Лебедев.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ройдет с 13 по 19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и Смирных. Его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строVa Развития, ОстроVa Экологии, ОстроVa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рой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работают с экспертам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увидят историческ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боев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Сахалина и посетят экскурсии. У молодежи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до 1,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ей идеи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форума: ostrova2021.ru. Там же проходит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ширяют географию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организм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0 год.

– В области здоровья наших граждан важно работать на опережение и вовремя диагностировать болезнь. Поэтому мы сделали упор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атегории 65+,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йти современное комплекс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смогут более 7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з группы риск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центр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начал действов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подобный центр открылся в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поликлиниках № 2 и 4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и в Тымовском.

Теперь это возможно сделать в Охинском, Холм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и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ах. В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эт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ся отд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обследования по разным профилям – онкологическому,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ическому, «Женское и мужское здоровье», «Здоровая спина» и другие.

– Все инициативы, озвученные во время доклада губернатора, своевременные и нужные людям.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йти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ли сдел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операцию,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и цифровизация, которая делает эти процессы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Колба.

Записаться на компьютер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можно у своего врача в поликлинике. Специалист поможет определить, куда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ить пациента – на расшир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рганизма или человеку достаточно узкопрофи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24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ьзуются мерам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0 год.

– Обвал бюджета поставил под угрозу реализацию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Благодаря депутатов, что вы поддержали позиц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выбрали интересы людей. Мы сохранили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Различны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пользуются 24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это половина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овышению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пенсионеров 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ри рождении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вырос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а свет первенца теперь получают все женщины,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Для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с детьми от 3 до 7 лет увеличили сумму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латы. Такую помощь получают около 8 тысяч семе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коло 2,5 тысяч семей с детьми смогли улучши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более 1,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установлено более 50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Мало какой регион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такой помощью,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Александра Михайлова. – Есть выплаты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и детям до 3 лет, мамам первенцев и многодетным мамам, студенческим и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Региональным материнским капиталом можно распорядиться уже с момента рождения малыша. В области делается многое, чтобы семьи не боялись заводить детей и были уверены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стигнет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к 2025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0 год.

— Мы для себя принципиально решили,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лжна быть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регионом. От этого зависит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Чистая экология — важнейший фактор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проживания. Поэтому мы пошли на климати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Последние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подтверждают правильность нашего выбора. Уже проходит согласов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роведен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Ожидаем, что он будет принят осенью,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ду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ддержк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обращения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Участие в эксперименте гарантирует, что все проект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и регион поддержат инвесторы и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В результат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получат чистый воздух и воду, сокращение расходов на автомобильное топливо и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 Эколог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у нас в области спокойная. Высоко оцениваем проект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н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го следа. Этот эксперимент поддерживают и наши московские коллеги из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храны природы — одного из старейших в России, ему уже почти 100 лет. В наш век экология и экономика идут рядом. Хорошо, что на это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Бюджет области можно пополнить, если заняться продажей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 отметила эколог Кристина Егорова.

Решать задачи по улучш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островах будут комплексно. Так, к 2025 году завершат газификацию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Это позволит избавиться от угольных, мазутных и дизельных котельных.

Продолжается перевод транспорта и техники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е виды топлива. Для этого в области развивают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частности, за дв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до 1000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Будет построена база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автобусного парка. С 2022 по 2024 годы за счет частных средст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е около 125 электробусов. Это позволит поэтап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изельных и бензиновых автобусов на муниципальных маршрута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вели генеральную уборку — выявили и ликвидировали около 2500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двор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контейнерные площадки. С 1 ию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ереходит на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от опыт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Еще один важный шаг — увеличение доли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в выработке энергии до 15 процентов.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намерены развивать геотермальную, солнечную и ветровую энергетику. Это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ть завоз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на отдал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и повысить надёжность энергообеспечения.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е ветропарк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К примеру,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объект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позволит производить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зеленый» уголь. Также добыв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строит самой большой в России конвейер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угля от Солнцевского разреза до порта Шахтерск. Его длина — 23 километра.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делала первый шаг на пути к созданию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с госкорпорацией «Росатом» и компанией Air Liquide — ведущ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промышленных газ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гут составить от 30 до 10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Более точн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оценки проекта. Инвестиции оцениваются в размере 1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авел Леонов» должен прибыть на Сахалин этим ле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0 год. Второе судно построено на Невск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судоремонтном завод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морского сообщ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В сфере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изошло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В регион прибыл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и уже вышел на куриль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торой теплоход — «Павел Леонов» ждем в июле-августе. Сегодня у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благодаря авиационному сообщению и новому морскому

транспорту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тали доступными и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 для турист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урильский общественник Андрей Данелия живет на Шикотане уже 35 лет. Он вспоминает, что раньше в сезон отпусков купить билет на материк было большой проблемой.

— Одного судна было явно недостаточно. К тому же, случались форс-мажоры, и шикотанцы месяц, а то и более оставались без надеж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вязи с Сахалином. Сегодня ситуация меняет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На линии курсируют два судна, скоро придет еще «Павел Леонов». Это решит проблему с передвижением пассажиров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обеспечит завоз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туризм на Курилах без нарушения интересов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считает Андрей Данелия.

2020 год можно назвать знаков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туризма. Уже ест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инвестором о запуске в июне двух катеров вместимостью 12 человек. Они будут возить туристов на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и мыс Анива.

Еще один инвестор приобретает катамаран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на 50 мест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руглогодичных морски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по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Он начнет работу с 1 сентября.

В июне стартовал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круиз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Магадан. Следующий будет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и по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С августа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у туристов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экспедиции на парусных яхтах.

Кроме того,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паромов для работы на переправе Ванино — Холмск. Оно должно завершить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развит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хаб с комплексом грузовых и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терминалов.

Новый порт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 на границе Макаровского и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Порт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ой современный грузовой комплекс с угольным, нефтяным и газовым терминалами. Концессио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его создании уже утверд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Аэрофлот»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на рейсах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осквой

Авиакомпания задействует самолеты большей вместимости — Boeing 777-300ER на 457 пассажиров. Это позволит в июне и июл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еревезти полторы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Так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в ходе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достиг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ПАО «Аэрофлот» Михаил Полубояринов.

—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доступными перелеты до столицы и обратно. Особенно в период летних отпусков, когда число желающих отдохнуть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возрастает в разы. Ранее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увеличении частоты рейсов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еперь вводи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также помогу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При этом за ситуацией на авиалинии нужно продолжать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что с 16 мая по 3 октября самолеты по маршруту Моск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осква летают дважды в день. А с 4 июня по 25 сентября предусмотрено ещ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третий рейс по пятницам и суббота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Москву связывают 16 рейсов в неделю.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2019 году, до пандемии, по этому маршруту самолеты летали 12 раз в неделю.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валидов готов принимать большее число пациентов

Уникальное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чреждение пос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знакомился с метод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и 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пациентов.

— Мы видим, прежде всего, по отзывам пациентов, что это один из лучших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не тольк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 и в стране. Нужно стремиться к тому, чтобы уровень помощи, которую здесь оказывают, был еще выше.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будем всячески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пасибо всем работникам за ваш труд, очень нужный и ценный, — обратился к сотрудникам учрежде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Центр построен п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Все помещения спроектированы с учетом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для различных категорий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Здесь предоставляют комплексн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широкий спектр социально-досуг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циально-бытов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риентацию. Ежедневно учреждение обслуживает до 150 посетителей. Есть стационарное

отделение на 27 мест с палатами, оборудованным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ми кроватями.

Центр оснащен передовы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 том числе аппаратами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атрофированных мышц, для роботизированной терапии верхних и ниж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 Это и велоэргометр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с чип-картами и б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ратной связью, и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ортезов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остеп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проходящих реабилитацию. Есть уникальные аппарат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невр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после операций. Например, экзоскелет — он по сути помогает заново учиться ходить,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талья Потапова.

Максим проходит здес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о время ныряния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ударился головой о камень и получил перелом шейного позвонка.

— Я шесть лет просто лежал дома и не двигался вообще. Ездил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но как только попал в этот центр, больше нигде не хочу. За два года занятий здесь уже мог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на коляске и езжу на автомобиле с руч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Считаю это заслугой врачей учреждения. Но и от нас тоже очень многое зависит, — поделился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ый труд коллектив учреждения наград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убернат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плексно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объект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лощад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2020 год.

— Одна из наших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качественной водой. Это вопрос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 значит, требу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построен магистральный трубопровод от водозабора «Малка» до Холмска, а также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на реке Малка. Завершена прокладка водопровода в селе Славы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ряде объектов продолжаются работы.

Так, ид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в селе Хоэ строят водопровод.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ела Воскресенское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окладывают сет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водозабор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систему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Долинске и водозабор в селе Горнозаводск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 селе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строят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Также в ходе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губернатор рассказал о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ектах. В частност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станции очистки вод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в Охе. Сейчас идет разработ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Отметим, реконструкц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комплексной работы по улучш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островах.

Четвер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через торговую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0 год.

—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мы считаем доступность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Для этого развиваем сеть эконом-формата. Сейчас товарооборот в ней достиг 25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продаж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Мы проводим ярмарки, расширяем фирменную сеть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изуем мобильную торговлю. Жители приобретают продукты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средников,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работают социальные магазины — всего порядка 130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в том числе 33 —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Они реализуют 40 наименований базов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с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ой не более 15 процентов. Разница в стоимости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от 10 до 20 процентов,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магазинами. В 17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организовали торговлю свежесобранной рыбой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каждый четверг дары моря раздают бесплатно.

—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выезжаю в район, то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посещаю социальный магазин и места торговли свежей рыбой. Эти вопросы находятся под моим особым контроле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У меня социальный магазин рядом с домом. Ассортимент хороший. Яйца, крупы, масло, огурцы свежие — все, что нужно, сегодня купила. Если с супермаркетом соседним сравнить, рублей 50 сэкономила, — поделилась пенсионерк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на Быко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진역사와 관련 프로젝트와 인형극 배우들의 영상인물 소개 기획 등은 сахалин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리스트>워크숍 보도부에서 밝혔다.

Трое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или стипендии от Союза фото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Союз фото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поддержк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и арт-фотографии в стране, подвел итоги ежег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стипендий. Их предоставляют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авторам, входящим в эту организ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получить эту поддержку сумели трое сахалинцев — Александр Гайворон, Дмитрий Ковалев и Кирилл Ясько.

Все трое представляют фотомастерскую "Лист" — организация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занимается обучением фотографии, сохранением наследия островных фотографов,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ей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 Наше объединение существует всего два года и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м удалось пройти через все формальности и оформить "Лист" как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Но темпы работы и развития взяты очень серьезные. Каждый год проходит несколько фотовыставок, реализуют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с начинающими фотографами.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о полноцен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фото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Это позволит ещё большему числу молодых островитян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фотоискусству и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своих проектов и инициатив,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Листа" Александр Гайворон.

В этом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продолжающуюся пандемию, "Лист" реализует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 Сахалинским театром кукол, а лет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стерской отправятся в Томаринский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ы, где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чить местных ребят основам фотографии. А осень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есколько фотовыставок — в том числе экспозиция автопортретов родителей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создать которую как раз позволит стипендия от Союза. Проекты по истории фотографии и видеопортреты артистов театра кукол проводя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астерской.

청년의 날,

포로나이스크에서 창작 프로젝트 시작

"미르" 문화레저센터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두 가지 창작 프로젝트 - "시 퍼즐"과 "얼굴 속 도시" 사진 공모전을 추진했다. 참가 가능 연령층은 14세부터 35세까지이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젊음은 힘이다!"라는 주제로 네 줄의 시를 써야 하는데 시에는 꼭 "젊음", "여름", "휴식", "사랑"이란 단어를 순서와 상관없이 써야 한다. 출품작은 문화 레저센터의 계정에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게시물에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제출될 사진들은 참가자가 자

신의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다. 사진 주제는 포로나이스크 시의 아름다움이나 도시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다. 필수적인 조건은 사진 속에 콩쿠르 참가자가 꼭 들어 가야 한다.

6월 25일, 이 대회的主최측은 각 콩쿠르의 우승자를 한 명씩 선정할 것이고, 이 우승자는 영화 관람권을 받게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다른 선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В Поронайске в честь Дня молодежи запускают творческие проекты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молодежи поронайский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й центр "Мир" дал старт двум творческим проектам — "Поэтический пазл" и фотоконкурс "Город в лицах".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 от 14 до 35 лет.

В первом случае надо сочинить четверостишие на тему "Молодость — сила!" из слов "молодость", "лето", "отдых" и "любовь", расположив их в любом порядке. Опубликовать их надо в комментариях под постом о конкурсе в аккаунте досуг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Фотографии,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конкурса, предлагается размещать в собственных блогах. Темами изображений должны стать красоты Поронайска или все, что можно рассказать о городе.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присутствие в кадре авторов.

25 июня устроители конкурсов определяют по одному победителю,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билеты в кинотеатр.

Конкурсантам запреще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религиозную и иного рода пропаганду".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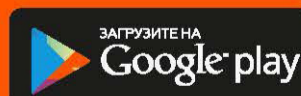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